

광 고

원양산업

제 1133 호
(2021년 5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한·러 어업협상 타결, 우리 업계 요구 100% 반영 / 4
- 제2차 노사정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 5
- 해수부,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 6

■ 협회 4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참치 요리 만들기 / 16

(참치회 무침)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1년 4월 보고 내용 / 17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3월 서부에서 조업 호조 / 21
- 3월, PNA 항구에서 전채 활동 증가 / 21

-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어획, 심각한 부진 지속 / 22
- 참치 선망선 선주, 연료비 상승 문제 직면 / 22
- 열대지방 해양생물 이동, 태평양 어업 생태계 위협 / 23
- 타이 유니온, King Oscar 브랜드로 미국 진출 / 23
- 코로나19에 아직 불안정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 24
- 日 선망선 참다랑어, kg당 6,000엔 기록 / 24
- ALDI North·South, 세계참치동맹(GTA) 가입 / 25
- rePurpose사, 참치업계에 플라스틱 대안 제시 / 25
- 피자 전자모니터링 실험 결과 / 26
- 태국, 참치 통조림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26
- 가나 선망선 전자 모니터링 실험 / 27
- 미국 참치 업계, MSC 인증 도입 발표 계속 / 27
- 일본 15년만에 참치 조정보관 사업 실시 / 28
- 日, 2020년 어기 태평양 참다랑어 TAC 준수 / 28
- 타이 유니온, 참치 폐기물을 고급 오일로 재탄생 / 29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압박 / 29
- 선망선 가다랑어 탄소발자국, 두부 생산 정도 / 30
- Wild Planet, 참치 샐러드 제품 출시 / 3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A시즌 어획량 및 매출 급락 / 31
- 美 농무부, 알래스카 명태 대량 구매 예정 / 31

Contents

• 러시아 서베랑해 대구, MSC 기준 충족했으나 반대 심해 / 32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규정 개정 / 42
• 러시아 대중국 명태수출 85% 감소 / 32	•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만 감시 강화 계획 추진 / 42
• 동해 러시아 수역, 향후 5년 명태 대폭 증가 가능성 / 33	• 英-노르웨이 어업협정 결렬 ... 英 수산업계 치명타 / 43
• 러시아 RFC社, 중국 대기업과 명태 공급계약 체결 / 33	• 영국-EU 임시 TAC 연장 / 43
• 수산업 전략 다시 짜는 러시아 정부 / 34	• MSC 인증 참치 제품 38% 급성장 / 44
• 러시아 RFC 명태 가공공장, MSC 인증 취득 / 34	• MSC, 지속가능 어업·연구 프로젝트 위한 기금 조성 / 44
• 러시아 어업, 외국 건조 어선의 어업 제한 / 35	• RFVS(책임어선표준), 英 선박에 첫 인증 / 45
• 러시아, 명태 어업 투자 장려 투자쿼터제 확충 방침 / 35	• 민대구 가공업, 나미비아 효자산업으로 급성장 / 45
■ 오징어어업 동향	• WTO, 수산보조금 논의 지속 / 46
• 日 연구기관, LED 오징어 집어등 연구 완료 / 36	• 유럽 수산업계, EU에 백신 접종 우선권 촉구 / 46
■ 콩치어어업 동향	• 美세포배양 수산식품 기업, 타이 유니온, 미쓰비시와 협약 체결 / 47
• 日 2021년 콩치 TAC 15만 5335톤 / 37	• 세포 기반 수산물 생산 회사 대표 인터뷰 / 47
■ 일본 수산 동향	• 탄자니아, 어업 발전을 위해 투자자 유치 / 48
• 日, 생선 근질·지질 파악 기술 연구 중 / 38	•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경제정책 로드맵 / 48
• 일본, 어선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심포지엄 개최 / 38	■ 쉬어가는 난 (詩)
• 일본 전(全)자동화 로봇어선 개발 진행 / 39	•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 49
• 국제 수산업계, IUU 관련 일본정부 조치 환영 / 39	■ 국내 수산 뉴스
•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언론 보도 현황 / 40	• 최대, 최첨단, 친환경 부경대 실습선 '백경호' 취항 / 50
■ 각국 수산 동향	•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을 품고 새로운 100년을 열다 / 51
• 미국·EU,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추진 / 41	•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걱정마세요! / 52
• 타이 유니온, 수산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 참여 / 41	• 원양어업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앞장선다 / 53
	• 유망한 수산식품 기업, 정부 지원 힘입어 해외로 뻗어나간다 / 53

한·러 어업협상 타결, 우리 업계 요구 100% 반영

명태 어획할당량 28,400톤 확보, 입어료는 동결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로 열렸다. 양측 대표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과 러시아 슈스타코프 수산청장으로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 북양·대구·꽂치 업계, 우리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진호정 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배정된 쿼터는 명태 2만 8,400톤, 대구 5,050톤, 꽂치 3,000톤, 청어 250톤, 가오리 500톤으로 우리 업계 요구가 100% 반영되었다. 그 외 연근해 어선 쿼터는 오징어 4,000톤 복어 60톤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명태, 꽂치, 대구 쿼터는 우리 업계 요구안이 100% 반영되어 각각 1.38%, 60% 축소, 3.5% 증가했다. 우리 업계는 명태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 실적 저조 가능성 등에 따라 소폭 축소를 요구했고 꽂치는 '19~'20년 조업실적이 없어 대폭 축소를 요구했다.

입어료는 전 어종에서 동결되었다. 특히 명태와 대구 입어료는 2년간 동결되어 이번 협상 시 러시아 측의 입어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해양수산부와 우리 업계의 노력으로 3년 연속 동결되었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 승선'과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 등의 조업 조건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여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러시아 측의 명태·대구 선박 내 비디오 녹화 장비와 모니터링 장비 추가 설치 요구 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화 장치를 유지·운영하고 차기 어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되어 우리 어선들의 조업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우리 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 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조업허가 절차 단축을 요청했고, 러시아 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의 조속한 발급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꽂치 10척, 연근해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한편, 우리 협회 및 업계는 올해 세 차례(1.14, 2.23, 4.2)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협상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제2차 노사정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1차 합동점검 후속조치, 휴식시간 부여 등 점검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제2차 노사정 합동점검회의」가 지난 4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김용식 주무관, 선원노련 김택훈 본부장 외 1명, 원양노조 김영수 본부장 외 1인, 원양업계는 동원산업, 신라교역, 우리 협회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우리 원양선사 33개사, 177척에 승선한 4,002명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차 합동점검 후속 조치, △임금 전액 지급 여부, △휴식시간 부여, △비상 생수 구비, △인권 고충상담 실시 등

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선사가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1차 합동점검회의에서 지적된 외국인 선원 설문 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동일사례 발생 방지 교육도 적정히 실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 선사는 휴식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일부 계절성 어업의 경우, 집중 조업 기간에는 1일 최소 휴식시간 부여 준수가 어려움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노조 측에서는 선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해수부,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원양 업계, 3명 포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1일 경상북도 포항 시에서 '깨끗한 바다, 희망찬 어촌, 우리는 수산인'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공동 주관한 기념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 시장, 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포상, △엔택트 퍼포먼스, △주제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유공자 포상은 총 30점으로 훈장 3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1점, 국무총리 표창 13점으로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수산인들에게 수여되었다.

이날 유공자 포상은 총 30점으로 훈장 3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1점, 국무총리 표창 13점으로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수산인들에게 수여되었다.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이후 2015년 5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31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협 경영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에게 돌아갔다.

우리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정환석 선장이 대통령 표창을, 신라교역 이상태 선장, 동원수산 임의산 선장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협회 4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부경대학교 실습선 백경호 취향식 참석
 - 일시/장소 : '21.4.23, 13:40 / 부산 용호만 매립 부두 일원
 - 내 용 : 건조과정 동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및 유공자 포상 등
 - 참석자 : 협회장
 - * 세계지도(스텐부식) 협회 명의 기증
- 2020년도 결산 외부 회계감사 수감
 - 일시/장소 : '21.4.19~20 / 협회 회의실
 - 감사 : 선진회계법인 오성원 회계사
 - 내용 : 2020년도 협회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와 국고보조금회계 등 전반적 감사
- 2021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4.12~7.31)
 - 실시기관 : 한신메디피아 건강검진센터
-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참석
 - 일시/장소 : '21.4.29, 14:00 /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5층, BPEX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 참석자 : 협회장
 - 내용 : 기념식, 국제심포지엄

-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행사
 - 일시/장소 : '21.4.1 / 경북 포항시청 대강홀
 - 원양부문 포상자(3명)
 - 대통령표창 : 동원산업 정환석 선장 (1명)
 - 장관표창 : 신라교역, 동원수산 선장 (2명)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2차분 기본운영비
- 2021년도 협회 회원수첩 제작관련 업무 추진
 - 초벌 인쇄의뢰 및 1차 교정작업 추진
- '21. 4월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초세무서)
- '21. 4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원양어선 조업선진화를 위한 기획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일시 : '21.4.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 외 4명,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책임연구원 외 1명, 원양선사 7개사, 기획홍보부 이사 외 1명 / 총 16명
 - 내용 : 케이프타운협정 도입 추세에 따라 향후 원양어선 신조시 협정 적용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수익구조가 열악한 업종의 장기발전 방향 모색
 - 원양어업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 원양연승어업의 표준선형 개발 기획안 마련

○ 원양산업 역사관 건립 관련 업무추진

- 가. 외국인해기사 및 역사관 건립관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4.19, 17:00/ 원양노조 사무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의 2명,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외 2명, 협회 기획홍보부 이사
 - 내용 : 원양어업 외국인해기사 도입 문제 및 원양산업 역사관 건립 관련 업무협의

나. 역사관 건립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1.4.27, 11:3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외 1명, 해상노련 김택훈 본부장 외1명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기획홍보부 이사 외 1명
- 내용 : 원양산업 역사관 건립 관련 업무협의

○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임원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4.22, 15:00 / 수협중앙회 10층
- 참석자 : 한수총 임원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논의 등

○ '21.4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1.4.21 / 서면결의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4척 7억원 원안의결
- * 3월말 기준 17개사 899억원 대출(48% 소진)

○ 홍보자료 확보 관련 원양노조 방문 업무협의

- 일시/장소 : '21.4.30, 13:30 / 원양노조 사무실
- 참석자 : 원양노조 박준형 과장, 협회 기획홍보부 김영수 과장
- 내용
- 원양노조 측에 원양어업 홍보 활용 관련 사진·동영상 요청, 추후 확보 방안(공모 시 입상 분야

다양화 등) 협의

- 유튜버 RAMP(구독자 4,46만명) 5월 중 하선예정으로 원양노조 측에서 연락해 만날 계획, 만남 시 협회에도 연락 요청
- 원양산업지 4월호(제1132호) 제작
- 협회소식 3건(4월 9일부터 외국인 선원 편승 입국 가능,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협의회 개최)
 - 국내소식 8건, 해외수산정보 53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7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00호 4.7, 101호 4.14, 102호 4.21, 103호 4.28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00호 정보 12건(참다랑어 양식실태 통계 요약/ 우루과이, RFMO 창설 위해 주변국과 협력 원해/ EU-영국 어업협상 난항)
 - 제101호 정보 15건(생선 DHA,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에 이점 제공/ 러시아 명태 어획 17% 감소/ 노르웨이 대구 양식의 미래)
 - 제102호 정보 15건(피지 전자모니터링 실험 결과/ 동해 러시아 수역, 명태 향후 대폭 증가 가능성/ 탄자니아, 어업 투자자 유치)
 - 제103호 정보 19건(가나 선망선 전자모니터링 실험/ 日 연구기관, LED 오징어집어등 연구완료 / 日 '21년 콩치 TAC 15만 5335톤)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해외수산협력센터,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4.13, 수산전문지)
 - (지면) 어민신문(4.19) 5면, 한국수산신문(4.19) 8면
 - (인터넷) 수산신문(4.16), 수산인신문(4.17)

○ '21년 3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133,243	126
- 참 치	79,650	113
· 횡감용	8,426	93
· 통조림용	71,224	116
- 명 태	0	-
- 오징어	43,049	218
- 콩 치	0	-
- 기 타	10,544	66%

- 어종별 단가자료 제출(4.27/통계청, 해수부)
 - '21년 판매금액 관련 1분기 및 2분기 업종별 어종별 적용 어가 자료제출

회원지원부

- 원양어선 스마트 모바일 전자조업 보고시스템 관련업무 추진

가. 온라인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4.19, 15:00 / 영상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원양업계 25개사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시스템 설명 및 업계 의견수렴 등

나. 공동구매 희망 어선 수요 조사(회원사/4.20)

- 라우터 및 테블릿 단말기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1.4.20, 14:00-15:30 / 영상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원양선사 / 협회

- 내용 : 법률안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나. 법률 대응을 위한 업종별 TF 구성원 추천요청 (회원사/4.22)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업무추진

- 원양노조로부터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등 접수(4.19)

- 원양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제2차 노사정 합동점검 관련 업무추진

- 점검항목(임금지급, 휴식시간부여 등)자료 취합 및 검토

- 2021년도 원양선원 묘지관리 사업 2차교부금 신청서 제출 (해수부/4.12)

- 예산 8천만원 중 잔금 4천만원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견제출(해수부/4.19)

- 수동보고 주기 및 자구수정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통보 및 상호 주의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안내 (회원사/4.1)

-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추가 통보 (회원사/4.2)

- 해외입국 내외국인의 PCR음성확인서 제출방법 안내(회원사/4.5)

- 원양프라자 건물 코로나19 양성 언론 보도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철저(회원사/4.7)

- 운반선 탑승 선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변경사항 알림(회원사/4.9)

-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추가

- 공해상 작업 후 운반선 탑승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관련 알림 (회원사/4.12)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신규발생국 및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국가(24개국) 안내 (회원사/4.12)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제재 기준 변경 알림(회원사/4.15)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목포, 부산 검역소/4.14, 4.15, 4.23)
 -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편승입국
- 방역강화 대상국가 조정사항 알림(회원사/4.19)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폐소 변경사항 안내(회원사/4.22)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및 이행철저 요청(회원사/4.23)
-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 (회원사/4.26)
 - 필리핀, 영국, 프랑스, 남아공,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목포검역소/4.28)
 - 인도네시아 4명
-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 (회원사/4.28)
 - 인도 추가
-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 국가 추가 통보 (회원사/4.28)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안내(회원사/4.29)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관련 업계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4.5,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설명·논의
- 해적관련 업무추진
 -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 해적 피랍사건 관련 동향 전파(회원사/4.21)
 -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 통항시 해적경계활동 강화요청(회원사/4.23)

-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 해적활동 동향 전파 (회원사/4.28)
- 원양어선의 해상원유 공급 시 유의사항 알림 (회원사/4.7)
 - 불법 해양운송이 의심스럽거나 우려가 있는 업체와 거래 주의
- 청해부대 호송계획(4-5월) 알림(회원사/4.7)
 - 소속선박이 해적위험해역 통항 시 활용 요청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알림(회원사/4.9)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WCPFC 열대다랑어 워크숍 관련 업무추진
 - 가. 업계 회의 개최
 - 일시/방식 : '21.4.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어업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2020년 업계 입장 유지, SPC 분석 요청 사항 및 어종별 자원 관리 목표에 대한 업계 입장 수립 등
 - 나. WCPFC 열대다랑어 워크숍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1.4.8, 16: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지원과, 해외수산 협력센터, 태평양 참치어업출어사 / 협력1부
 - 결과 : 정부가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입장문(안) 작성하여 회람 예정

- 다. WCPFC 열대성 참치 워크숍 대응방향 수립
- 참치선망 공해조업일수 한도 회복, 참치연승 어획 한도 상향 등 업계 의견 제출 및 우리나라 입장에 반영 요청(해수부)
 - (입장문 주요내용)
 - (종합 의견) 열대성참치 조업 기회 상향 검토 희망
 - (예외 조치) 모든 국가에 한도 적용
 - (감축 국가) 눈다랑어 쿼터 및 공해조업일수 감축 국가 회복
 - (과학 분석) FAD 0.5마일, 부이가 부착되지 않은 FAD 영향 분석
 - (자원 관련 분석) 가다랑어 눈다랑어 자원량 변화 분석

- 라. 제1차 WCPFC 열대다랑어 워크숍 참석
- 기간/방식 : '21.4.26-27, 29-30,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PNA 등 WCPFC 회원국 / 해외협력본부장 외 1명
 - 결과 : 열대다랑어 국별 입장 공유, SPC 분석 요청 내용 및 2차 워크숍 일정 협의 등

- 제4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1.4.13, 1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참치연승 눈다랑어 '01-'04년 평균 어획량의 70%~75%까지 어획한도 상향, 연안국 예외조치 삭제 또는 관리규정 제정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2021어기 지역수산물구별 어획할당량 배정 및 배정방법 안내
 - WCPFC 선원 근로 표준 관련 보존조치(안) 검토의견 제출(해수부)
 - 참치연승 눈다랑어 HGT 처리 어획 부속물 처리 방법 안내
 - WCPFC 바닷새 저감 보존조치 관련 규정(부속물 배출 관리)에 따라 배출할 것을 권장

- 지역수산물구별 어획할당량 소진 현황 및 전배 실적 제출(해수부)
- IOTC 이행평가결과 초안에 대한 해명 의견 제출(해수부)
- 2021년 1-3월 태평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소진 실적 확인
- CCSBT '20어기 남방참다랑어 어획실적 제출(과학원)
- CCSBT 어획실적(3월) 및 양륙계획(5월) 제출(해수부)
- 국제수산물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참치어업 지원사항
- PNG 입항 수속 시 개인 위생 준수 협조 요청(PNG 수산청)
 - 키리바시 연수생 비자 만료기한 연장 건의(해수부)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로 대기 중인 키리바시 연수생 6인 비자 만료기한 연장 요청
 - 나우루 입항 전제 관련 상세 규정 확인 요청(나우루 수산청)
 - '21/'22어기 FFA 등록비 배정
 - PNG 라이선스 수정 요청
 - 조업일수 추가 구매
 - 조업일수 전매(솔로몬 → 투발루)

해외협력 2부

-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관련 업무 추진
- 가.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안) 수정 의견 제출 요청 및 의견 제출 (4.12, 21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해수부)
- 나. '21년도 러수역 공치쿼터량 및 분할배정 의견 제출 알림(4.14 / 공치위원장)

- 다. 통역관 격리면제 처리(4.14, 4.20 /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 센터, 주러대사관)
 - 필수 인력 확인서, 코로나 음성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 라.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참석자 명단 제출 (4.15 / 해수부)
- 마. '20년도 러시아 수역 입어료 및 생산금액 등 제출 (4.20 / 해수부)
- 바.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4.23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사.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 기간/장소 : '21.4.27~29 / 롯데호텔 벨뷰, 샤�롯데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외교부, 수과원, 수품원, 수협, 채낚기연합회,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회의결과
 - 업종별 쿼터량 확보 결과

업종	어종	쿼터량(톤)	증감(톤)
북양 트롤	명태	28,400	△400
	대구	50	-
	청어	250	-
대구 자연승	대구	5,000	170
	가오리	500	-
공치 붕수망	공치	3,000	△4,500
오징어 채낚기	오징어	4,000	△700
	복어	60	△10
합계		41,260	△5,440

* 조업실적을 반영한 업계 희망량 모두 반영 확보
 · 모든 업종의 입어료는 전년 동결기로 합의
 * 입어료 : 명태 375, 대구 436.2, 공치 106, 오징어 110

- 러측의 선단별 통역사 배치요청은 전년과 동일하게 선박별 육상 통역사 배치로 합의함
- 명태·대구 조업선 내 비디오녹화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 추가 설치 건은 차기 어업위에서 재 논의

- 대러시아 업무추진
 - '20년도 북양트롤 및 대구자연승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및 납부완료 알림 (4.1, 4.2 / 러 수산청, 동북극국경수비대)
 - 해상용 전자저울 인증서 및 러문번역본 제출 알림 (4.9 / 러수역출어사)
 - 해상용전자저울 인증서 러문 번역본에 대한 직인처리본 수령 및 조업선 비치 알림 (4.21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21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배정기준 알림 (4.30 / 북양·대구·공치위원장)
 - '21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업종별 배정 결과 제출(4.30 / 해수부)
 - '21년도 러시아수역 북양 및 대구자연승 쿼터 배정 및 입어료 납부 안내(4.30 / 북양·대구위원장)
 - '21년도 북양 및 대구자연승어업 조업허가신청서 제출 알림(4.30 / 북양·대구위원장)
 - 러수역 조업 계획, 선박 및 통역관 정보 등 감독관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알림(4.30 / 북양·대구위원장)
- 「러시아 포디아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안내(4.14 / 북양·대구·공치·한러위원장)
 - 해수부가 시행한 러시아 포디아폴스키 항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안내
- 한·러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알림 (4.21 / 전회원사)
 - 변경사항
 - 러시아어선 입항 항구 '포항항→포항영일항만'
 - 러시아어선 입항정보 제공기한 '빠른시일내→근무일 7일내'
- '21년도 원양어선 안전관리펀드 사업 수요조사 재조사 안내(4.26 / 전회원사)
 - '21년도 사업 예산 3척 중 2척의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전업종을 대상으로 재조사
 - '21년 : 제출수요 없음(5.7까지)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업무추진
 - NPFC 보존조치사항 알림(4.9 / 콩치위원장)
- 오징어채낚기 업무추진
- 가. 페루 항만국 통제 관련 주재국 교섭 결과 알림 (4.13 / 채낚기위원장)
 - 페루 수역 입항시 위성추적시스템(SISESAT) 의무 장착 1년 유예 불가 내용 알림
- 나. '21어기 포클랜드 해운선사 SAAS 이용권 입수 (4.16 / 아그네스수산)
 - 801승진호의 부산 회항에 따른 SAAS시행 어려움에 따라 아그네스 선박 이용기로 함
-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가.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선정위원회 결과 알림 (4.22 / 승진수산, 아그네스수산, 원양물산)

회사명 (선박명)	대상 수역	어종	조사 시기	어법
원양물산 (102금양호)	북태 평양	빨강 오징어	'21.6.1 ~8.5	채낚기

- 나.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가 수요조사 알림 (4.13 / 전회원사)
- 다.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정보공시 확정 (4.21 / e나라도움)
- 라.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조사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4.21, 4.22 / e나라도움, 해수부)
- 마.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가 수요조사 결과 제출(4.23 / 해수부)
 - 승진수산(채낚기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 정일산업(트롤: 41해구 VME)
- 공해 저층어업 UN 결의사항 이행 고시 업무추진
 - 「공해 저층어업 UN 결의사항 이행 고시」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4.23 / 저연승·트롤위원장)
 - 「공해 저층어업 UN 결의사항 이행 고시」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4.23 / 해수부)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업무
- 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대응
 - NPFC 신규선박 등록 및 선박 톤수 등 수정 처리 (4.14 / NPFC)
 -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결과 알림 (4.22 / 북양·콩치·오징어위원장)
 - 콩치붕수망어업 콩치 샘플 수집 협조 내용 알림 (4.22 / 콩치위원장, 수과원)
- 나.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대응
 -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결과 알림 (4.22 / 오징어·전쟁이·저연승위원장)
- 다. '2021년도 NAFO 쿼터 전배 MOU 입수 (4.20 / 에스토니아어업협회)
 - * 쿼터량 : 적어 169톤, 오징어 453톤,
전배금액 : USD 28,000

부산지부

- 차량계량소 관련 동양과의 부지확인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4.22, 13:00/ 태평종합건재
 - 참석자 : 동양 진수환 차장, 부지 사용 업체 대표,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우리측 부지 250m² 확인, 차량계량소 바닥 보수 요청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5개사 904건(4.1~4.30)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6척(참치연승6)
 - 출항 : 6개사 9척(저연승1, 참치선명1, 참치연승7)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WCPFC 열대다랑어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21.4.26~28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팀장(의장),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협회, 업계
 - 내용 : 열대 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을 위한 관리 목표 및 조치 범위 논의
- IOTC CDS 작업반
 - 일시/장소 : '21.4.26~28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IOTC CDS 개발을 위한 개발 옵션 등 논의
- CCBST 바닷새 프로젝트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21.4.1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오성택 사무관, 협력센터 김선경,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NGO에 의한 바닷새 프로젝트 계획 현황 및 공유
- CCBST eCDS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21.4.7-8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보미 주무관, 협력센터 김선경,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사무국에 의한 eCDS 트라이얼 경과보고, 개요 설명, 회원국 질의응답
- 제166차 FAO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4.26-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외교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KMI, FAO협회,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하부 위원회 보고서 채택, 업무예산 계획 검토, FAO 행동강령 작업 경과 등

- 일본 동향 모니터링, 자료 조사
- 가. 방사능 처리수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 처리수 내각 관료회의 개최
 -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장관) 처리수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참관
 - 경산성 기자회견 이후 언론 동향 분석 (NHK, 후쿠시마 지역 언론 등)
 - 일본 관방장관 한국 원전 처리수 방출 수치 언급 내용
- 나.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원협) 처리수 동향 모니터링 자료 송부
 - 처리수 해양방출 위험성, 수산업계 동향 등
 - 고래 자원 조사 현황, 상업포경 쿼터 등
- 다. (해양영토과) 일본 해양영토 관련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 독도 관련 일본 언론 동향 (교과서 검정 “고유의 영토” 표기)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독도 연구 동향
- 라. (지도교섭과) 일본 개정 어업법 번역 (계속)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가. 원양산업뉴스 45건 업로드
- 나. E-NewsLetter 3월호 발송
- 다. 2분기 전문가 특별기고 게재(4,5)
 - 국내 연어 산업 세계화를 위한 제안(서윤기 박사)
- 라. OFIS 개선사업 용역 최종 검수
 - 일시/장소 : '21.4.28, 13:30 /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휘스키 최택진 대표 외 1명,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OFIS 개선 사이트 검수 및 계약규격 부합 여부 확인

-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4.14,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 추천위원 7인
 - 내용 : 추천대상자 2인(양골라, 파푸아뉴기니)
중 1인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선정

- 서류접수 : '21.4.14 ~ 4.23
- 서류 합격 발표: '21.4.27
- 필기·면접 전형: '21.4.29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 가. '20년 투발루 지원물품(제빙기, 어류 분쇄기)
수출포장 및 선적 추진(4.6)

- 나. 마이크로네시아 차기 사업 관련 영상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4.30, 09:00/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 Mr. Meter Chuuk State Governor's
Senior Advisor, Mr. Nakayama
Chuuk State Governor's Asststant
Chief of Staff,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축주 어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사업비 확보과정 및 추후 계획 공유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 가. 통계조사 실시(4.19 ~ 5.13)
 - 조사결과 내검용 엑셀파일 작성(단독, 합작)
 - 수신조사표 오류 검토 및 보완
 - 경영자료 제출선사 재무제표 등 입력
 - 조사관련 문의사항 대응

- 나. 원양어업 생산동향('21.2) 작성 및 OFIS 게재

○ 센터운영관련

- 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1/4분기 실적
보고 제출(4.9, 국제협력총괄과)

- 나. 사업 외부회계감사 수감

- 내용 : '20년도 센터 운영 사업(4개 사업) 회계감사
- 감사 : 선진회계법인
- 보고서 제출 : 국제협력총괄과(4.28)

- 다. 기획운영 행정관 채용





참치회 무침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210Kcal
- 재료 : 참치(날것) 400g, 양배추(붉은 것) 100g, 무순 50g, 풋고추·붉은고추 2개씩
- ※ 고추장 2큰술, 설탕·식초 2큰술씩, 레몬즙 1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참치회 썰기 : 참치는 토막으로 준비해서 한입에 먹기 적당하게 납작썬다. 먹기 직전에 준비하기 어려우면 썰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기 직전에 꺼낸다.

- ② 채소 손질하기 : 흐르는 물에 양배추, 깻잎을 흔들어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 후 6cm정도로 곱게 채썬다.
- ③ 고추, 무순 준비하기 : 풋고추와 붉은고추는 깨끗이 씻어 동글썰어 씨를 털어낸다. 무순도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는다.
- ④ 초고추장 곁들여 상에 내기 : 고추장에 분량의 양념을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접시에 준비된 참치회와 채소를 돌려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입맛에 따라 겨자장을 내도 좋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4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영세어업 지원 계획 수립

- 세네갈 선박수리시설기업 SIRN, 서아프리카 신용대출기업 Locafrique, 상업은행 West Africa Capital Advisors 등 3개 기업은 영세어업 현대화 사업 (규모 4,300억 CFA) 재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동 사업의 주축 중 하나는 길이 12m 미만의 통나무 소형어선(piroques)을 유리섬유 어선으로 대체 해 어선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5→20년), 올해 부터 약 10년간 800억 CFA가 투자될 예정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황다랑어	10kg 상	2,035
	3.4kg 상	1,089
	1.8kg 상	1,005
눈다랑어	10kg 상	1,047
	3.4kg 상	1,047
	1.8kg 상	1,005
가다랑어	3.4kg 상	1,047
	1.8kg 상	1,005
	1.5kg 상	879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60 유로 / MT	'21.4.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4월 18일 입국 확진자 격리시설 근무 감염으로 국내전염이 피지 비티레부 본섬(수바, 난디 포함)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
- 피지정부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섬을 서부(난디 지역), 중부(수바지역), 동부(수바동부공항 지역)로 나누어 지역 간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 각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은 금지하지 않으나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은 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항공편은 단혔으나 선박 입출항은 계속 되고있다.
- 현재 피지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호주 및 기타국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 주재 한인 및 교포들 중 성인은 거의 다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806/ MT	'21.5.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모든 공공 단체, 사업체, 학교, 대중교통은 05~24시까지 영업 제한. 단, 종교단체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스타키스트 참치공장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 모든 선박들은 대리점을 통해 항만청 및 보건국에 입항 72시간 전 이메일로 해양보건선언(항열병,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선박세부사항(승무원 목록 및 승선 날짜), 입항도착 최소 72 시간 또는 마지막 기항지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만약 마지막 기항지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수 없을시 선장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승무원이 있으면 14일 전 보고해야 한다.
- 아메리칸사모아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은 전면 중단되었다. 귀환 항공편(하와이에어라인)은 6번 더 운행한 후 중지된다.
- 8월부터는 하와이로 왕래하는 항공기(하와이에어라인) 정기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 16세 이상 백신 접종비율은 60% 이상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450	
눈다랑어	라운드	1,250	
가다랑어	라운드	1,2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2.24(gallon)	'21.5.3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계 인력부족

- 코로나 사태로 인해 통상 수급되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없어 수산업계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 뉴질랜드 정부와 수산업체들이 손잡고 현지 인력 보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 이는 정부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허가를 내준 조건으로 현지인력 고용 증가 노력을 수산업계가 강화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850	Sea Jho Co.Ltd
	L	3,400	
	M	2,800	
	2M	2,6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750/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5.4
	LMFO \$654/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가나인 사관이 없는 가나 원양어선들

- 가나에는 현재 원양어선을 운항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선장이나 사관이 없다. 이로 인해 일본, 중국,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주요 사관들을 자국 해역의 원양어선의 인력자원으로 끌어들이었다.
- GhanaIndustrial Trawlers Association(GITA)의 Mr Gilbert Sam 사무국장은 “원양 참치어선과 트롤선을 조종할 수 있는 가나 사관들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지만 현재 어선을 관리할 수 있는 선장과 기관장 외 주요 사관, 준사관들이 없다”고 말했다.
- 그러나 the Regional Maritime University (RMU) 대학 학장인 Dr. York Ababio는 많은 어선들이 외국인 소유였고, 국가의 법에 따라 선원들의 일정 비율이 외국인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선주들은 그들 자신의 선장과 다른 주요 사관 들을 데려오는 경향이 있었고, 훈련된 가나 선장과 기술자들을 부정하여, 가나인 주요 사관들의 취업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150	
	10kg 하	900	
가다랑어	3.4kg 상	1,250	
	1.8kg 상	1,200	
	1.8kg 하	1,150	
	1.5kg 하	9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595/kl MGO	'21.4.30	육상급유
SK B&T	\$565/kl MGO	'21.4.30	양상급유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2021년 페루 중·북부 수역 1차 멸치 조업 TAC 발표

- 총 허용 어획량 2,509,000톤
- 4.23 부터 10일 간의 시험 조업 후 본격 조업 시작
- 조업수역은 페루 에쿠아돌 국경 수역부터 남위 16도선까지
- 선박별 쿼터 배정(올림픽 방식이 아님)
- 페루 해양 연구소 (IMARPE)의 조사 결과 어체 전장 2~18cm에 달하는 BIOMASA TOTAL DEL STOCK(멸치자원)은 988만톤, 이 중 250만 9,000톤을 1차 조업 시즌에 어획할 수 있다.
- 페루 생산부 장관의 결정문 : RESOLUCION MINISTERIAL 120 - 2021 - PRODUCE
- 최근 5년 페루수역 멸치 연평균 양륙량은 395만 3,000톤이며, 2020년에는 4,31만 4,600톤이다.

나. 페루수역 2021년 대왕 오징어 POTA 총 허용 어획량 발표

- 한국, 중국 등 외국적 선박은 해당사항 없으며, 페루 영세선박과 연근해 선박에 해당된다.
- 총 허용 어획량 58만톤
- 총량 소진시까지, 미소진시 12.31일 조업 종료.



다. 일본 및 스페인 국적의 연승 선박 동향 및 현지 업무 내역

- (KAIO MARU 108) 4.3일 입항, AMP 부두에서 07컨테이너 하역 및 베이트 1컨 선적 후 4.7 출항
- (TOEI MARU 8) 4.5일 입항 및 06컨 하역. 베이트 2컨 + 선용품 2컨 선적, 선원 교체 및 수리 작업 중
- (CHOKYU MARU 68) 4.13일 부터 SIMA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 중.
- (COSTA AZUL UNO) 4.18 입항 공시. 8컨 하역 작업 예고. 4.23 상가 예정.

라. 선박 입·출국 기준

- 출국 선원은 페루 입항 후 격리하지 않고 선박 내에서만 생활, 출국할 때는 목적지 도착 72시간 전 기준으로 까야오에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검사 후 6시간, 늦어도 24시간 내에 증서 발급가능하다.
- 입국 선원은 페루 도착 72시간 전에 출발 국가에서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 그리고 대리점에서 발급하는 LG와 입국 허가서를 소지하면, 페루 도착 후 격리 없이 당일승선 가능하다. 그러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경유자는 입·출국 불가하다.
- 수리기사 입·출국은 현재 페루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어, 예전과 같이 관광객처럼 입·출국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원 신분으로 입국하고 선박에 체류하면서 수리 작업 후 출국하면 문제 없다. 호텔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하다.
- 일반 수리는 묘박지, 중요 수리 시 해군부두 접안 가능하며, SIMA 조선소 역시 현재 정상 작업 중이다.
- 위와 같이 페루 정부에서는 선박 입출항과 이에 연관된 항내 업무, 수리작업과 부식 보급 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업무로 분류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 4월 11일 페루 대통령 선거 결과

- 총 18명의 후보자가 출마 했으나 아무도 과반 (50%) 득표를 하지 못했다. 좌파 성향이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빠드로 까스티요 후보가 19% 득표율로 1위, 그리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페루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의 장녀인 우파성향 게이꼬 후지모리가 13% 득표하여 2위. 따라서 1, 2위 득표자 2명이 6월 6일 결선 투표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7월 28일 취임 예정이다.

바. 코로나 관련 동향(5.5일자)

- 확진자 1,824,457명, 사망자 62,976명
- 백신(시노팜, 화이자) 1차 접종자 1,212,445명, 2차 접종자 644,519명
- 접종 대상자는 페루인 2천 4백만명, 외국인 140만명
- 리마, 까야오 등 수도권에서는 4.30일부터 현재 70-79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중
- 현재 야간 통행금지 시간 21시 부터 04시까지. 시장, 마트, 약국, 은행, 식당 시설 이용제한 40%
- 한-페루 무비자 협정도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 페루 출장 시에는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함.

사.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47 / 갤론	'21.5.6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3월 서부에서 조업 호조

총 어획량, 전월 대비 22% 증가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해 더 많은 가다랑어가 방콕 가공장으로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PNA 국가들의 잠정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EEZ 및 공해에서의 총 어획량은 13만 3,696톤으로 2월에 비해 약 22%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35% 증가했다. 참치 양륙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2월에 가장 낮은 약 11만 톤을 기록했다. 선망선들은 3월 PNA 전역에서 조업했지만 중서부태평양 서부 특히,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에서 더 많이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망선들의 PNA EEZ와 공해 조업일수는 지난달에 비해 300일 증가한 3,800일이었다.

1월부터 이어진 추세와 동일하게 참치가 가장 많

이 어획된 수역은 파푸아뉴기니였다. 파푸아뉴기니 수역 어획량은 약 4만 8,000톤을 기록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급격히 증가해 3만 톤에 가까웠다.

선망선의 일일 어획량은 2월보다 3톤 증가한 35톤으로 지난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선망선 선장들에 따르면 3월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이 2월에 비해 4~5톤 증가한 32톤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한다.

3월 어획물이 방콕에 도달하기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된다. 현재 태국 가공업체의 수요는 매우 적은 상태로 신규 가다랑어 유입으로 인해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4일자

3월, PNA 항구에서 전채 활동 증가

PNG, 키리바시 전채량, PNA 전체에서 88% 차지

올해 3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참치가 PNA 항구에서 전채되었다.

잠정자료에 따르면 3월 선망선이 PNA 항구에서 운반선에 전채한 냉동 가다랑어 원어는 6만 8,185톤으로 전월 대비 1만 9,000톤 가까이 증가했다.

전채된 어획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선이 직접 항구에 입항, 하역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캔 가공공장의 냉동 창고 등으로 입고되었다.

지난 3~4개월의 추세와 동일하게 전채는 대부분 Rabaul, Madang, Wewak 등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 이뤄졌다. 3월 PNG EEZ에서의 선망

선 어획량은 4만 8,000톤이었다. 이 중 4만톤이 필리핀 제너럴산토스나 방콕으로 가는 운반선에 전채되었다.

키리바시도 EEZ에서의 선망선 어획량 증가로 자국 항구 전채량이 전월 대비 7,000톤 증가했다. 파푸아뉴기니와 키리바시는 전체 PNA 전채량의 88%를 차지했다. 반면, 마셜제도 마주로항에서의 3월 전채량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적었고 투발루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5일자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어획, 심각한 부진 지속

3개월 연속 1톤 가량 기록... 동부태평양 상승세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의 대형 황다랑어 어획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개월 간 계속되고 있으며, 3월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잠정자료에 따르면 PNA(나우루협정당사국) EEZ와 공해에서의 대형 황다랑어(9kg 이상) 일일 어획량이 3개월 연속 1톤 가량에 그쳤다.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대형 황다랑어의 평균 무게가 마리당 63kg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3개월간 선박당 일일 양륙량은 척당 16마리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남태평양위원회(SPC) 소속의 한 과학자에 따르면, 어선들은 수개월 간 황다랑어 어군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학자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의 원인이 라니냐, 엘니뇨(La Niña or ENSO) 등의 이상기후 때문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수개월 간 이어진 대형 황다랑어 조업 부진은 머지

않아 참치 로인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어선들은 FAD에서 주로 잡히는 소형 황다랑어의 어획량 감소를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황다랑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2월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이 2.3톤이었으나 3월에는 1.5톤으로 감소했다. 소형 황다랑어의 마리당 평균 무게를 1.7kg 가량으로 가정하면, 3월 선박당 일일 양륙량은 척당 882마리 정도로, 지난달보다 470마리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동부태평양 선망선들의 황다랑어 양륙량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은 1만 3,000톤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3월에도 지속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6일자

참치 선망선 선주, 연료비 상승 문제 직면

WTI·브렌트유 급등...3월 이후 최고치

브렌트유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3월 중순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참치 선망선의 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5일 브렌트유와 WTI가 70달러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3월 중순 이후 최고가이다. 6일 WTI는 배럴당 64.71달러, 브렌트유는 6일 배럴당 68.09달러, 7일 배럴당 67.94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4월부터 해상연료, 특히 선박용 경유(MGO, Marine Gas Oil)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 방콕 가다랑어 시세는 톤당 1,350달러였고, 세계 최대 급유항

(bunkering port)인 싱가포르의 4월 19일 MGO 시세는 톤당 544달러였다. 선망선 한 척이 참치 1톤을 잡는 데 평균적으로 0.65톤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주들은 참치 1톤을 어획하기 위해 MGO에 353.60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또한 태평양 중서부에서 방콕까지의 운송비용은 300달러로, 남은 696달러로 인허가 수수료, 화물 결제 비용, 승무원 급여, 상각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5월 7일 싱가포르 MGO 시세는 톤당 575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5월 7일자



열대지방 해양생물 이동, 태평양 어업 생태계 위협

지구 온난화 영향... 다수 해양생물 적도 떠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해양생물 종이 적도 지역을 떠나 이동하면서, 참치 어업 의존도가 높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수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양생물 다양성(marine biodiversity)이 지구 온난화에 '지구적 규모(global scale)'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종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평균 연간 해수면 온도가 20°C를 넘을 경우, 해양생물들의 풍부도(richness level)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도 부근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특히 원양 생물의 경우 더욱 뚜렷했다.

Anthony Richardson, Chhaya Chaudhary, David Schoeman, Mark John Costello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적도가 더욱 더워지면서 해양 생물 개체들이 적도 지방을 떠나고 있다. 많은 종에게 적도 지방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해외 참치 어선을 대상으로 한 조업권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치 어종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도서국들의 영해를 떠나 아열대 지역을 향해 급속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태평양수산위원회(FFA)에 따르면, 2019년 태평양 도서국들이 조업 허가를 통해 얻은 수익은 5억 달러(한화 약 5,576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에 따르면 상어, 쥐가오리, 바다거북 등의 종도 기후변화로 해당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해당 연구는 2억 5,200만 년 전 이러한 해양 생물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모든 해양 종의 90%가 소멸되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가적인 온난화를 막고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 배출 감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5월 7일자

타이 유니온, King Oscar 브랜드로 미국 진출

우리병에 담긴 황다랑어 제품 출시

타이 유니온 그룹은 King Oscar 브랜드의 새로운 프리미엄 참치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King Oscar는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수산물 브랜드이다. 타이 유니온은 2014년에 이 브랜드를 인수했다.

King Oscar 브랜드로 미국 소비자에게 참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참치 제품은 우리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순중량 190g의 프리미엄급 황다랑어 필렛을 담았다. 이 제품은 그린 올리브, 할라피뇨, 프로방스 허브, 햇볕에 말린 토마토 네가지 맛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4일자



코로나19에 아직 불안정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선망선, 코로나로 생산 차질, 향후 EU 인증 갱신 문제로 입거 예정

인도양 참치 어업은 4월에 다수의 선망선이 선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10~15일 항구에 머물며 타격을 입은 이후 회복하고 있다.

이제 어업이 최대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더 상승했다.

현재 세이셸 포트빅토리아 및 포트루이스에 하역되는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140 유로(1,376 달러)이다. 3월 가격은 톤당 1,050 유로(1,272 달러)였다. 가격 상승은 업계가 일반적으로 5월에 발생하는 어업 비수기 시즌을 준비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 어선들은 조업 수역을 세이셸 EEZ에서 인도양 북부 공해로 옮겼다.

소식통은 인도양 참치 공급이 올해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부분의 선주들이 EU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건선거(dry-dock)에 입거해야 함으로 어업 노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검사 및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6주이다. 올해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지연된 것도 포함된다. 불안정한 상황과 예상되는 낮은 어획량으로 참치 공급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모리셔스와 세이셸 가공공장은 가능한 모든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재료가 방콕이나 아비장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낮은 수준으로 올해 이 시기에 정상적이라고 한다. 선망선은 6월까지 주로 황다랑어가 거의 이동하지 않는 지역의 FAD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세이셸 황다랑어(10kg 이상) 현물가격은 톤당 1,900 유로(2,295 달러)로 5%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7일자

日 선망선 참다랑어, kg당 6,000엔 기록

지난해 약 2배... 日 참치 품귀 현상

일본 중대형 선망선이 지난 5월 7일 미야기현 시오가마항과 이시노마키항에 참다랑어를 양륙했다. 평균 시세는 kg당 6,000엔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50% 상승했다.

시오가마 어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매매업자들의 매입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5월 들어 미야기현 산지 어시장이 계속 휴장했던 점, 수입 눈다랑어의 입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겹쳐, 참치 재료 부족 업체가 늘어난 것이 참다랑어 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올해 참다랑어 시세의 고공행진에는 전국적인 참치 품귀 현상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배달이나 점심 영업 등에 주력하는 음식점도 증가하고 있어 참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해 요식업 거래량은 여전히 평년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다랑어 시세는 다음 회차부터 지난해 수준의 시세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5월 8일자



ALDI North·South, 세계참치동맹(GTA) 가입 지속가능한 참치 공급 약속

할인소매 체인 Aldi North와 Aldi South가 지난 5월 3일 열린 웹 세미나에서 세계참치동맹(Global Tuna Alliance) 가입을 발표했다. 이들은 GTA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참치 공급을 약속했다.

Aldi North와 South가 취급하는 참치 제품은 이들의 수산물 상품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GTA 가입은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촉진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Aldi South는 해당 세미나에서 인증된 참치 공급원과 추적 가능한 공급망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Aldi South 산하 기업 Aldi US는 최근 지속가능한 참치 공급 약속을 포함,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Aldi US는 또한 포장재를 15% 감축하

고 2025년까지 자사의 모든 전용 포장재를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ldi US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자체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의 100%가 책임 있는 어업과 양식에서 공급받은 제품이다. 또한 이들은 수산물 정보공개 프로젝트(Ocean Disclosure Project)에도 동참하고 있다.

Aldi North와 South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 걸쳐 1만 1,500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은 GTA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6일자

rePurpose사, 참치업계에 플라스틱 대안 제시 기업에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최근 미국 참치 업계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 기업이 제공하는 플라스틱 감축 솔루션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참치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참치 통조림 외에도 참치 파우치(pouch)가 포장의 간편함 때문에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러나 100% 재활용 가능한 참치 통조림과는 달리, 파우치 포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참치 및 수산식품 기업인 Safe Catch는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인도 기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회수 전문 기관인 rePurpose Global의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rePurpose는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rePurpose와 계약한 기업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당 1파운드의 플라스틱 제거 자금을 rePurpose에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 스티커를 받는다.

Safe Catch는 수산식품 업체로서는 최초로 플라스틱 중립 라벨을 부착했으며, 자사의 파우치 상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관련 활동에 기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전문 솔루션을 통해 쓰레기 감축 활동에 기부하는 것 또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22일자



피지 전자모니터링 실험 결과

FAO 보고서

지난 몇 년 동안 참치 어업 분야에서 전자 모니터링(EM)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FAO는 ‘참치 어업의 전자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피지와 가나에서의 EM 실험을 살펴보고 감시 및 준수 강화 방안의 모색을 목표로 한다. 피지는 연승선, 가나는 선망선에서 실험이 이뤄졌다.

피지 실험은 2015년부터 이뤄졌고 2018년에는 연승선의 34%가 실험에 포함되었다. 2019년 자료는 아직 구할 수 없지만 약 56%로 전체 89척 중 50척에 해당한다. 이 실험에서 미흑점상어(silky sharks), 큰지느러미홍상어(whitetip sharks)의 부수어획 방류 규정 준수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방류에 더 주의하도록 선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상어를 방류하기 위해 줄을 잘라야 한다고 나타났다. EM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역은 전채량과 양륙량의 불일치 등이 있다.

실험의 일환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공유수면 참치 프로젝트(Common Oceans ABNJ Tuna Project)’는 EM 시스템 구현에 따른 비용과 이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비즈니스 케이스(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가치 분석) 개발을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와 계약했다.

컨설턴트는 검토 결과 피지가 연승선 50척의 EM 시스템 관리에 지불한 금액(유지보수, 직원 급여 등)은 연간 39만 3,281 달러라고 결론지었다. 이 금액에는 기존 설치된 장비의 비용이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EM이 조업 활동을 감시하고 보존조치 준수를 확인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실험에 참여한 어선에서 확인되었던 좋지 않은 관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EM의 또 다른 이점은 과학적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20일자

태국, 참치 통조림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생산 확대를 위해 에콰도르에 아웃소싱도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참치캔 수요가 증가했으며 2021년 현재까지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태국의 참치 캔 수출은 미국, 유럽 시장으로 각각 47%, 25% 증가했고, 특히 가공을 에콰도르에 아웃소싱해 생산을 확대했다.

타이 유니온(Thai Union Group)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참치캔의 생산을 증가시켰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타이유니온의 여러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되면서 타이유니온이

에콰도르에서의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치캔의 수요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보관 가능한 제품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참치 통조림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는데, 이는 가격 결정 시장인 방콕의 냉동 가다랑어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 기사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1년 4월 30일자undercurrentnews, 2021년 4월 20일자



가나 선망선 전자 모니터링 실험

2015년부터 실험, 현재 선망선 14척 모두 도입

가나에서 참치 선망어업의 감시와 보존조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실험이 이뤄졌다.

최근에 발간된 ‘참치 어업의 전자 모니터링’이라는 FAO 보고서에 실험 결과가 실렸다. 2015년 가나 선망선 5척에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선망선 14척 모두에 도입했다.

조업 방법의 차이로 선망어업이 연승어업에서 촬영한 영상보다 분석 시간이 적게 들어 분석하기 용이하다. Satlink사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비와 영상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제공했다. 장비를 포함해 평가관 3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55만 7,960 달러이다.

당국과 업계는 EM 사용으로 보존조치 준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EM 분석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확인되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혼획 어획물 폐기, 보호

종 미방류, 가다랑어 채낚기선에 전재하는 행위 등 좋지 않은 관행들이 발견되었다. 긍정적인 면은 멸종 위기종 혼획 중 약 80%가 안전하게 방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개체는 방류 과정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가나 실험으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이 EM 구현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망 어업의 경우 다회 조업 특징으로 오히려 EM이 총 어획량과 종 구성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연승어업에서 나온 EM 자료는 다른 어업에 비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EM 영상으로 나중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조업 중에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갑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21일자

미국 참치 업계, MSC 인증 도입 발표 계속

Walmart, Bumble Bee 도입으로 가속화될까?

미국 참치캔 브랜드 탑3(StarKist,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 중 하나인 StarKist는 올해 4월에 2025년까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어업에서 어획된 가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StarKist는 지금도 어업개선프로젝트(FIPs) 또는 MSC 인증 참치를 100%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umble Bee는 2022년까지 MSC 인증 어업에

서 가다랑어를 100% 조달하고 2023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FIP에서 모든 날개다랑어를 조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hicken of the Sea는 날개다랑어만 MSC 인증 참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MSC 지속가능한 참치 핸드북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에서 판매된 MSC 참치 물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8%에 불과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28일자



일본 15년만에 참치 조정보관 사업 실시

日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하락하는 참치 가격 떠받쳐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 참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업계 지원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평준화 사업을 이용해 조정보관(우리나라 수매사업과 유사)을 발동했다.

코로나 대응 평준화 사업은 대상 어종이나 실시 주체의 제한이 없다. 어협은 이를 활용하여 어업자 지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어협의 이야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과거의 신용을 바탕으로 참치 어선이 귀항하기 전에 거래가 성립되고 가격이 정해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로 고급 상품인 참다랑어나 남방참다랑어조차도 선주가 매매업자에게 『직접 물건을 본 다음 가격을 결정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물건을 보지 않으면 가격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매입업자들도 판매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동 참치 어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방참다랑어의 가격이 지난해 1,850~2,000

엔에서 2020년 12월 1,540 엔까지 떨어졌고, 고가에 거래되는 호주 프리멘탈 어장의 눈다랑어 가격도 지난해 1월 1,500엔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1,200엔까지 하락했다.

조합원 어업자가 수지타산이 맞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통공판에 의한 조정보관을 한다. 참다랑어, 남방다랑어를 주체로 한 조정보관이 시행되었고, 산하 어업자들은 어가 하락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준화 사업을 활용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감염 재확산과 두 번째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 또다시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시장이 곧바로 회복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영향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가는 선주들의 수지에 직결된 문제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준화 사업을 통한 어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14일자

日, 2020년 어기 태평양 참다랑어 TAC 준수

소진율 소형 73.3%, 대형 86.3%

일본 수산청은 4월 26일 태평양 참다랑어 제6 관리기간(근해 '20년 1~12월, 연안 '20년 4월~'21년 3월)의 어획 상황을 정리했다. 3월 31일자 기준 TAC 소진율은 소형(30kg 미만) 73.3%, 대형(30kg 이상) 86.3%이다. 소형 어획 실적은 근해 852.3톤(소진율 60.8%), 연안 2,252.6톤(80.0%)으로, 전체 TAC의 73.3%를 소진했다. 대형은 근해 3,750.5톤(97.5%), 연안 1,567.3톤(76.8%)으로 전체 TAC의 86.3%를 소진했다.

TAC 미이용분(유보 포함)은 소형 113.2톤, 대형 841.7톤이다.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TAC 미이용분은 2021년 어기 내에서도 상한선(소형 4,007톤, 대형 4,882톤)의 17%까지 다음 관리기간으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이월분은 5월에 예정된 수산 정책심의회를 통해 다음 기간에 합산된다.

* 기사 출처: 일본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30일자 기사



타이 유니온, 참치 폐기물을 고급 오일로 재탄생

DHA 함유 28~30%

참치뼈로 만든 칼슘 제품을 출시했던 타이 유니온(Thai Union)의 자회사 타이 유니온 잉그리디언츠(Thai Union Ingredients)가 참치 오일을 활용한 최신 브랜드 UNIQDHA를 공개했다. 이 브랜드에는 참치 원유와 정제 오일도 포함되어 있다.

정제 오일은 독일 로스토크에 있는 회사의 최첨단 공장에서 생산된다. 이 공장은 세이셀, 가나, 태국에 있는 타이 유니온의 공장에서 나오는 참치 원유, 날개다랑어(white tuna) 오일 등을 가공한다.

이 공장은 특별한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수산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에너지와 화학 물질을 절약할 수 있고, 폐기물도 보다 적게 배출한

다. 이는 ‘건강한 삶, 건강한 바다’가 모토인 타이 유니온의 사업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원유는 참치 머리 부위를 원료로 하여 적당한 온도에서 추출된다. 이 원유는 28~30%의 DHA를 함유하고 있으며, 정제 오일 제품의 기본 원료가 된다. 정제 참치 오일은 신선한 어류와 비슷한 수치의 DHA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아 영양제,식이 보충제, 영양 식품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

타이 유니온 잉그리디언츠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함을 보증한다. 원유와 정제 오일 모두 대량 포장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으며, 할랄(무슬림 인증)과 코셔(유대교 인증)를 받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26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압박

낮은 수요와 비용 증가, 1,350 달러에 거래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어획량 호조와 저조한 참치캔 수요가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지난 3월 톤당 1,400달러까지 상승한 후 지금까지 약 7주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보에 따르면 일부 판매업자가 1,400달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선적분은 50달러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콕 가다랑어 현물 가격은 톤당 1,350달러로 3주 전보다 약 7% 하락했다.

문제는 방콕의 통조림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태국의 가공업자들은 출고와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가다랑어 구매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해 막대한 운송비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올해 초 일부 통조림 회사는 해외 운송을 위해 기존보다 거의 3~4배 높은 운송비를 지불했다.

이러한 운송비 상승은 방콕 가공업자들이 막대한 운송비를 상쇄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19일자



선망선 가다랑어 탄소발자국, 두부 생산 정도 선망어업, 기후변화 영향 낮아

선망선에서 어획한 가다랑어의 탄소발자국(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만큼 적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13일 캘리포니아대학, 산타크루즈대학, NOAA(미국해양대기청)는 어업의 연료 사용량, 어업 방식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참치 어획, 온실가스 배출(GHGs) 등을 조사한 공동연구 결과를 학술지 Elementa에 발표했다. 이들은 선망선, 트롤선, 연승선 등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가다랑어 채낚기와 같이 선별적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이동 거리가 길고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많고,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선별적인 기구를 쓰는 방식은 더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면서도 기후 변화에 훨씬 낮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사례로 미국 선망어업의 탄소발자국은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탄소발자국만큼이나 적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FAD가 기후 변화나 어획 비율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연구의 수석 저자 Brandi McKu인는 『이번 연구는 어업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해 소고기를 피하듯이, 해산물도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제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연료 친화적 방식의 어업 대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식의 어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업을 위한 연료 보조금을 화석연료 구매 대신 하이브리드 전거나 전기 배터리 보트 도입 등 전기화 기술 및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14일자

Wild Planet, 참치 샐러드 제품 출시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치샐러드 볼’

지속가능한 참치 브랜드인 Wild Planet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치샐러드 볼(Ready-to-Eat Tuna Salad Bowls)’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가다랑어 채낚기선에서 어획한 가다랑어 100%와 유기농,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은 채소, 파스타, 콩류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을 쓰지 않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했다.

맛은 3가지로 유기농 레드페퍼, 토마토, 그린 올리브를 곁들인 ‘야생 참치 파스타 샐러드’, 병아리콩, 당근, 레드페퍼, 그린 올리브를 곁들인 ‘야생 참치 흰콩 샐러드’, 유기농 옥수수, 레드페퍼, 당근을 곁들인 ‘야생 참치 콩과 콘 샐러드’가 있다.

무게는 5.6온스(약 159g)이며 권장 가격은 개당 4.99 달러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4월 15일자



러시아 명태 A시즌 어획량 및 매출 급락 필렛 생산량은 급증

러시아는 중국 항구봉쇄로 인한 어획량 부진을 겪으며 지난 4월 10일 2021년 명태 A시즌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PCA(러시아명태어업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들은 오호츠크해 77만 7,000톤을 포함, 극동 수역에서 총 85만 8,000톤의 명태를 어획했다.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오호츠크해에서 14% 감소했고, 극동 수역 전체로는 15% 감소했다. TAC 소진율은 지난해보다 14% 하락한 73%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대책으로 칭다오, 다렌 등 중국 주요 항구가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어업자들이 명태 운송 경로를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1년 오호츠크해 명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 완제품 생산은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업계와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명태 필렛 생산은 17%, 다진 명태육 생산은 21% 증가했다. 명태가 필렛으로 가공된 비율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24%를 기록했다.

러시아 명태 B시즌은 북오호츠크해 조업구역 10월 15일, 서캄차카 조업구역에서 11월 1일에 시작된다. TAC는 약 25만톤 남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B시즌의 어획량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획량을 8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명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2% 감소했다. 러시아의 명태 어업 TAC는 2021년 오호츠크해 주 어장 106만 1,000톤을 포함, 199만 6,000톤으로 정해졌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4월 26일자 러시아 명태 어획량은 90만 7,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4% 감소했다. 오호츠크해 전 어장 지역에서의 전체 명태 어획량도 80만 6,700톤으로 16.1% 감소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30일자

美 농무부, 알래스카 명태 대량 구매 예정

3천 톤 이상 ... 역대 4위 수준

미국 농무부(USDA)가 알래스카 명태 공급업자들에게 역대 4번째로 많은 832만 5천 파운드(약 3,700톤) 상당의 명태 필렛 및 피시 스틱(fish stick) 제품의 공급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학교 급식 계획(NSLP)을 비롯한 연방 정부 식량 지원 계획에 사용될 예정이다.

USDA가 요청한 수량 중 670만 파운드(약 3,040톤)는 USDA의 가정용 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60만 파운드 가량은

학교 및 보호 시설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계약 입찰은 5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USDA는 그 외에도 약 270만 파운드(약 1,200톤)의 메기 제품 공급을 요청했고, 참치 캔, 해덕 대구 필렛, 연어 필렛, 연어 캔 제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Intrafish, Seafoodsource 2021년 5월 5일자



러시아 서베링해 대구, MSC 기준 충족했으나 반대 심해 에코라벨 부착 기준 충족 ... WWF-美 반발 거세

러시아 서베링해 대구 어업이 MSC(해양관리협회의) 인증 요건을 잠정 충족했다.

금요일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서 인증 기관인 로이드사는 해당 어업이 MSC 표준의 기본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제 인증 과정은 보고서 초안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단계로 접어들었다. 반대 의견을 제기한 측은 세계야생기금(WWF)과 미국수산물가공협회(APA)로, WWF는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강조한 수준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공급업자들과 경쟁하는 입장인 APA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업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은 인증 기관의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인증 그룹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공식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이번 보고서 초안에서

로이드사는 서베링해 대구 어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MSC 기준 4개를 정리했는데, 주로 감시 정보 부족과 관련된 사안이다. 로이드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조건 통과(Unconditional pass mark)’를 취득하지 못했으나, MSC 인증 기간인 5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4개 요구 기준 외에도, 로이드사는 트롤선 어구의 조업 수심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비구속적 권고안을 제시했다.

러시아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과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SC 규정에 따르면 인증 취득 6개월 전에 수확한 어류는 MSC 에코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A시즌에 어획된 대구의 일부에 해당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5월 7일자

러시아 대중국 명태수출 85% 감소

자국 공급량 증가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활로 모색 중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1~3월 대중국 냉동명태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85% 감소한 4만 6,000톤, 금액은 4,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대책으로 인한 수입 제한의 여파이다.

기존의 주요 판매 루트이자 가공공정 처리 역할을 담당하던 중국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활로를 모색 중인 러시아 명태업체는 대안 중 하나로 자국 공급량과 제3국 수출을 늘려서 중국 의존도

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 RFC사는 최근 리투아니아의 대기업 Viciunai와 러시아 국내 시장에 명태 가공육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선상 가공이 가능한 108m 규모의 대형 트롤선 추가 건조 등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일부 다른 생산자들도 태국, 베트남 등의 판매 루트를 개척해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23일자, Intrafish 2021년 4월 22일자



동해 러시아 수역, 향후 5년 명태 대폭 증가 가능성 러시아 기관 발표, 북부 오호츠크는 감소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연구 기관은 지난 3월 14일에 열린 명태 어업 발전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러일 수역 왕래가 확인되는 명태가 동해 러시아 수역에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기 예측 평가를 발표했다.

러시아연방 해양수산연구소 태평양지부의 담당 부서는 올해 오호츠크해 포란 명태 조업 A시즌 프리뷰 및 과학조사 결과를 총괄 보고했다. 부서에 따르면 명태 친어량은 캄차카-쿠릴 및 서캄차카 조업구역 1,000만톤 이상, 북부 오호츠크 조업구역 500만톤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트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체수는 470억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여기에 유어 어획 혼획량이 최저였고 장기 모니터링에서도 후속 자원의 가입이 확인되지 않아 가

까운 장래에 오호츠크해 TAC 삭감이 권고되었다. 명태 자원의 북부 해역 감소 경향이 확인된 요인은 남부 해역의 번식 조건 개선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해 명태 자원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회의 협의 결과, 올해 어기의 명태 TAC를 여기 중에 개정해 전체 TAC에서 10만 6,000톤 삭감 권고 준비가 승인되었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극동 지역 명태 어획량(혼획, 연안 어업 포함)은 4월 11일까지 86만 3,3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4월 15일자

러시아 RFC社, 중국 대기업과 명태 공급계약 체결

중국 내 KFC-디즈니랜드 호조 영향

러시아 흰살생선 대기업 RFC사가 미국과 중국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Chang International사와 명태 필렛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FC사는 Chang International사의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 수산식품 브랜드 중 하나인 Ocean Gala와 명태 필렛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Chang International사는 RFC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만든 제품을 디즈니랜드 상하이와 고급 유통체인 Ole'에 유통하고 있다. 이 회사는 RFC와의 이번 제휴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최근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공개했다. Chang사는 RFC 원료로 만든 제품 공급을 중국 내 고급 슈퍼

마켓 체인, 5성급 호텔 체인, 패스트푸드 체인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FC사는 KFC에 명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치킨 샌드위치 제품 외에 생선 기반 제품도 취급하는 KFC는 중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중국 전역에 4,5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명태 필렛과 연육 등 부가가치 가공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RFC사는 Viciunai, Meridian, KVEN, Santa Bremor 등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 소유 슈퍼트롤선에서 가공한 300톤 이상의 연육을 2021년 2분기 공급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5월 5일자



수산업 전략 다시 짜는 러시아 정부

코로나로 중국 수출 막혀, 수산업 뜯어 고치는 러시아 정부

중국의 러시아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어업 회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명태 가격이 kg 당 65루블(약 980원)로 바닥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kg당 113 루블이었던 명태 가격이 올해 들어 65루블까지 떨어진 것이다. 3월 들어 소폭 올랐지만 작년의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명태 가격이 추락하자 2월 말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3월 1일부터 어획을 중단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중국이 러시아산 수산물의 하역 작업을 다시 시작해 어획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중국이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만 허용한 상태라 여전히 중국 수출은 예전에 비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어업과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 냉장냉동 보관 시설의 확충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선 어획량 쿼터와 투자를 연계하는 투자쿼터제도를 적극 활용해 극동 지역에 냉장냉동 창고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산물 가공공장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 공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작년이다. 투자와 어획 쿼터를 연동하는 투자쿼터제도의 도입으로 러시아 어업 회사들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과 볼쇼이카멘 선도개발구역에 새롭게 수산물 가공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수산물에 대해 철도 보조금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조금으로 러시아 중부에 풀리는 생선 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늘려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중부 지역으로 운송되는 생선과 수산물의 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극동 수산물가공 선도개발구역 지정, 수출선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다.

* 기사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3월 26일자

러시아 RFC 명태 가공공장, MSC 인증 취득

유럽에 연육제품 공급 가능해져

연해주에 위치한 러시아 RFC사의 명태 가공법인 Russian Pollock Plant사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획득해 유럽에 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Russian Pollock Plant사의 Mikhail Degtyarenko 전무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제품에 생산 공정 전체가 MSC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인 MSC 에코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현재 연해주, 예카테린부르크, 크

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 라잔, 모스크바 등 러시아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RFC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 제품의 첫 EU, 북미, 아시아 지역 운송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Russian Pollock Plant사는 지난해 9월 생산을 시작해 러시아 연해주 최대 연육 가공기업이 됐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26일자



러시아 어업, 외국 건조 어선의 어업 제한

쿼터 유지 위해서는 러시아 통관 필수

러시아 어업 회사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외부에서 건조, 구매 또는 서비스되는 어선의 러시아 해역 조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어획량 감소와 수산물 소매가격 상승 유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운영하는 어업 회사들은 선박 비용(건조, 구매 비용으로 추정)의 관세 5%와 부가가치세 20% 지분을 경계해 통관 절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국내 어획량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른바 관세 사면을 선포하여 5% 관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관세 면제 기회를 잡은 회사들이 많지 않았다. 통관되지 않은 선박 척수는 90척에서 69척으로 줄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이러한 선박이 러시아 수역 어업 쿼터를 부여받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 미통관 어선들은 쿼터를 지키기 위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1월 전국러시아어업협회(VARPE)는 Mikhail

Mishustin 총리에게 연락해 2024년 1월 1일까지 결의안의 이행 연기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환기간 마련을 촉구했다.

Traflo사와 Sofco사의 대표이사인 Vladimir Rekasov는 올해 3월말 Victoria Abramchenko 부총리에게 연락해 국내 모든 어업 분야가 새로운 규칙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성이 낮은 어종(정어리)의 어획을 그만두고 더 많이 찾는 어종으로 어획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Abramova 부총리는 러시아 농무부와 연방수산청에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부총리 발표 후 수산청 Shestakov 청장은 통관의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Shestakov 청장은 『현재 관세청도 어업자도 통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통관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4월 15일자

러시아, 명태 어업 투자 장려 투자쿼터제 확충 방침

러시아 명태가공 체제 변화 목표...20% 확장 예정

러시아 수산청 Shestakov 청장은 명태 고차가공의 진전을 위해, 러시아 국내 어선이나 육상가공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쿼터제 확충 방침을 발표했다.

Shestakov 청장은 현재 TAC의 20% 이내로 투

자쿼터를 배분하고 있으나, 여기에 20%를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2023년부터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안 성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19일자



日 연구기관, LED 오징어 집어등 연구 완료 에너지 절약 및 빨강오징어 어획량 증가 효과 입증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 개발연구센터가 2013년부터 8년에 걸쳐 실시한 오징어 어선용 LED 집어등 실용화 연구가 3월 말 종료되었다. 실제 어선을 이용한 빨강오징어 어업 조사는 에너지 절약과 어획량 증가의 양립이 가능함을 실증했다. 하지만 살오징어 어업의 경우에는 오징어 자원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선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부수적 이점 등으로 LED 집어등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징어 어업에 소요되는 총 연료 소비량의 30~40%는 집어등이 차지한다. LED로 교체로 인한 집어등 발전용 엔진의 유류 소비량은 약 43%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태평양 해역에서 빨강오징어의 어획량은 LED 설치 선박이 MH(메탈할라이드) 설치 선박보다

10~20%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연료소비량 또한 LED를 사용할 경우 22% 절감이 입증되어, 비용절감 효과도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는 LED 집어등을 통해 연료를 절약하면 어장 체류기간도 늘어나, 1항차 당 어획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에 비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연구 시작 시점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LED와 MH 방식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빨강오징어보다 빛을 사용하는 조업 시간이 긴만큼 연료 감소 효과가 30%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오징어 자원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LED 방식은 MH 방식에 비해 오징어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어획량이 반감된 경우도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26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日 2021년 공치 TAC 15만 5335톤 NPFC 조치 반영해 개정, 1997년 이후 최저치

일본 수산청은 4월 20일 의견교환회를 통해 2021년 1~12월 어기 공치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보다 40% 감소한 15만 5335톤으로 결정하고, 26일 수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승인 받았다.

일본은 공치 TAC를 2015년 어기 이후 6어기 연속 26만 4,000톤으로 동결했으며 본래 이번 어기도 전 어기와 같은 양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공치 TAC가 현행보다 40% 감소한 공해 19만 8,000톤, 일본·러시아 EEZ 13만 5750톤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이번 어기의 TAC를 변경했다. 이번 TAC는 TAC 설정을 시작한 1997년 어기 이후 최저치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치 어획량은 2015년 어기 이후로 매 어기 13만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TAC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교환회에서 일본수산연구·교육기구는 NPFC 연례회의의 자원평가 결과에서 소개된 '17~'19년의 자원량 및 어획 비율을 통해, 최근 자원이 과도하게 어획되고 있으며, 어획 강도도 과하다는 점과 20년의 CPUE(단위노력당 어획량)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020년 공치 어획량(잠정치)은 2019년보다 28% 감소한 총 13만 8,000톤으로 대만 5만 5,000톤, 중국 4만 4,000톤, 일본 3만 톤, 한국 6,000톤, 바누아투 2,700톤, 러시아 750톤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4월 21일자, 26일자





日, 생선 근질·지질 파악 기술 연구 중 적외선 사용, 과일 당도 측정에서 착안

일본 장치업체 니레코는 아오모리현 산업기술센터 식품종합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수산물과 접촉하지 않고 썬치나 고등어류의 지질 함유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은 근적외분광법(近赤外分光法)을 사용한다. 근적외분광법은 비파괴측정, 즉 상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광센싱 기법 중 하나이다. 근적외선이라는 빛을 쏘아 흡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분량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과일의 당도 측정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알고 싶은 당도 등의 정보를 표시, 즉 품질을 수치화하고 가시화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 비파괴측정기술은 어류의 근질 계측에도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속하고 손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I와 ICT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의 데이터화를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근적외분광장치를

이용, 컨베이어 벨트 위를 이동하는 고등어류의 빛 흡수에 대한 비접촉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얻은 빛 흡수 데이터(스펙트럼 데이터)에서 어체의 냉동 해동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와 지질 함유율의 관계를 해석한 결과, 냉동·반해동·해동 등 각 상태의 고등어류의 지질 함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상태 식별 기술과의 조합에 따라, 어체 상태에 따른 지질 함유율 추정 계산식의 선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니레코는 이러한 기술을 원료의 자동선별이나 데이터화에 활용하기 위해, 수산가공기업 야마요나 오모리현 산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질 등 원료 정보를 부여한 고등어류 가공제품을 시범 제작, 그 효과를 실증했다. 향후 이러한 기술이 보급된다면, 「지질 ○○% 함유」 등이 표기된 수산물이 마트나 생선가게 등에 진열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5월 7일자

일본, 어선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심포지엄 개최 관계부처에 어업법 비롯한 관련 규제의 개선과 완화 촉구

일본 어선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심포지엄이 일본수산회와 해양수산시스템협회 주최로 4월 16일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70년만에 개정된 어업법에는 IQ(개별어획할당) 도입 어선에 톤수제한 완화를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업자에게는 IQ 할당량을 늘려 대형어선 건조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는 경영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어업법 외에도 관련부처의 관계 법규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선박직원법, 경제

산업부가 관할하는 수입 관련법 등이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어업계가 관련법규에 발목이 묶여 있는 동안 해외 선박들은 선박 건조 등으로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일본도 법규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포지엄에서는 지금이 기술 혁신을 진행할 적기이라고 보고 있지만, 새로운 어업으로 이행에 수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법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논의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20일자



일본 전(全)자동화 로봇어선 개발 진행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 고려

최근 일본에서는 기존의 어선에 필요한 요소만 갖춘 것이 아니라, GHG(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은 소음으로 어장과 항구를 왕복할 수 있는 전(全)자동화 로봇 어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로봇어선 실현을 위한 기술로는 우선 자동충돌방지가 있다. 어선사고의 65%가 충돌사고이기 때문에, 충돌방지 기술은 사고방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의 항해 코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오토파일럿 기술은 아직 타선과의 충돌 방지와 관련된 기술이 탑재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연구자들은 다른 배를 피하면서 자동 항해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현재 3척의 모형선을 이용한 수조 실험에서 30분 이상 충돌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항해 중에 풍파나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어장까지의 안전한 최적항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자들은 해상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최적 항로를 선택하는 웨더 루팅(weather routing) 기술을 어선용으로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어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HG 배출량 삭감을 위해 전기 추진 기술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의 전기배터리로는 원양까지 이동하기 어렵지만, 항구에서 가까운 양식시설까지 이동하는 어선에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다. 양식용 작업선의 기지항구는 인구밀집지역 이외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엔진소리가 없어 바다 속으로 방사되는 소음이 크게 감소해, 해양생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22일자

국제 수산업계, IUU 관련 일본정부 조치 환영

일본정부와 수산업계 협력을 통한 진전 기대

전세계 100개 이상의 수산물 취급 기업이 참가하는 3개 국제 조직은 지난 4월 14일, 일본 정부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관련 입법조치 정비를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3개 조직은 SeaBos(해양관리수산업협회), GTA(세계참치동맹), ISSF(국제지속가능한수산물기금)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 일본정부가 발의해 통과된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배제하는 수산물 유통적정화법(특정 수산동식물 등 국내 유도의

적정화 등에 한 법률)을 환영하는 내용이었다. 테레즈 로그 베르그요르드 SeaBos 회장은 『IUU 어업을 세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진일보된 개정 어업법과 이번 새 법안(수산물유통적정화법) 도입에 대해 일본 정부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다』 며 『강력한 법률과 신뢰할 수 있는 추적가능 프로그램은 IUU 어업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밝혔다. 톰 피커럴 GTA 전무와 수산 잭슨 ISSF 회장도 정부와 기업의 IUU 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16일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언론 보도 현황

- 원전 오염 처리수, 한국, 중국도 해양 방류 (산케이 신문, '21.5.10)
 - 부산에서 가까운 고리, 월성 원전에서도 트리튬 방출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
 -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국내 방사선 전문가 제언 및 국회의원 해양 방류 반대 의견(아사히 신문, '21.5.10)
 - '15년, 정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이에 맺은 합의 불이행, 후쿠시마에서는 이제 막 본격 조업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에 결정된 것은 최악의 타이밍
 - 생태계 영향도 포함한 과학적인 평가 없이 해양에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관련 소문 피해를 증폭시킬 우려
 - 잔존하는 불확실성 자체도 사회와 공유하고 어떻게 취급해갈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 수산업 관계자, 우려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과 대화 필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음

- 도쿄전력, 처리수 방류 지점 근해 1km 지점도 검토(산케이 신문, '21.5.10)
 - 해저 배관을 통해 근해로 배수하는 안 검토 중 (시추 조사 예정)
 - 부지에 접한 연안해역으로 배수하는 안도 병행하여 검토
 - 계획 지연 시, 탱크 증설도 고려

- 미야기 현,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연대 회의 첫 개최(일본 경제 신문, '21.5.11)
 - 미야기현 지사, 수산업·농업·관광업 단체 대표 참가
 - 처리수 처분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

- 도쿄전력, 트리튬에 관한 국민 대상 설명자료,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정의에 대한 과학적 설명자료 발표 (도쿄전력 홈페이지, '21.4.28)

- 일본 환경과학기술연구소, 해양방출 시, 농도 모니터링 계획 구체화에 대해 제언 (요미우리 신문, '21.4.30)

- 후쿠시마 현, 농림수산업 4개 단체(22개 세부단체 포함) 해양방출 반대 성명 발표 (아사히, 일본경제 신문, '21.4.30)

- 일본 부흥청, 해양방출 국내의 반응 파악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검토(NHK, '21.5.2)

- 美 원자력규제위 전위원장(Richard A. Meserve), 스가 총리에 서한 송부 "처리수 해양방출은 원자력 안전의 국제기준에 합치"(NHK, '21.5.4)

- (후쿠시마현)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공표 (4.22)
 - 어패류 및 해조류에서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음
 - 담수어, 내수면 양식어에서는 일부 미량의 세슘 (기준치 이하) 검출



미국·EU,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추진

2개 지역, 동남극 지역과 웨들해

미국은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함께 남극해 2개 지역의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EU는 동남극 지역(East Antarctic)과 웨들해(Weddell Sea, 코츠랜드와 남극 반도 사이의 남극해 해역) 지역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감독 하에 MPA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2016년에 한 요구에 따라 전 세계 해상 중 30%의 보호 지정을 공식 국정 목표로 채택했다. 해당 2개 지역이 MPA로 지정된다면 목표치 30%에 1%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MPA 지정과 어업 활동이 "제로섬 게임"이 되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릴오일 컨설턴트사 Tharos의 수장 Dimitri

Sclabos는 『환경보존과 적절한 관리 하의 어업 활동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크릴새우 어획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어업 활동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크릴새우 어획 경쟁은 광대한 범위의 지정학적 경쟁과 얽혀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신규 MPA 지정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세계 최대의 환경 NGO 중 하나인 푸 자선신탁은 『남극해의 한랭 해류는 전 세계 어장에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열 분포도 조절한다. 또한 남극해의 물은 특유의 방식으로 탄소를 저장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며 남극해의 MPA 지정을 지지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5월 7일자

타이 유니온, 수산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 참여

수산물 공급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타이 유니온이 수산물 공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수산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Ocean Disclosure Project, ODP)' 참여를 선언했다.

타이 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 참여는 자사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인 SeaChange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약속했다.

타이 유니온은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로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회사 운영을 통해 얻은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공개한다. 주주 및 이해

당사자들은 자료를 통해 수산물이 어획·생산되는 지역, 어업에 사용한 어구, 지속가능성 등급 및 인증 여부 등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ODP는 2015년 지속가능한 수산 파트너십(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SFP)에 의해 만들어졌다. SFP는 수산물 유통업체, 협력업체, 어업 사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천연 및 양식 수산물의 정보를 공개·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현재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 걸쳐 약 30여 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5월 4일자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규정 개정 모든 식품 적용, 영상검사 가능, 포장표시 변경 등

4월 12일, 해관총서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에 관한 제248호령을 공표하였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행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과 비교 시, 등록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중대 변화가 있다.

기존 적용 대상은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서 모든 식품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대 중국 수출 식품군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이 해당된다. 단, 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용 설비, 도구 등 관련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는 제외된다.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가 폐지된다. 등록 폐지 서류는 수출국

동식물 전염병 발생 상황, 수의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잔류,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및 위생 요구 등에 관련된 법규 및 법률, 수출국 식품위생 관련 기구 조직도, 인원, 관련 법규 및 법률 등 서면 자료이다. 유효기간은 허가 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록기한은 만기 도래 1년 전에서 3~6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서면 및 현장검사만 가능했으나 영상 검사도 가능해진다.

포장표시는 기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에서 수출식품의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 등록번호 표기로 변경된다.

* 기사 출처: 농식품 수출정보, 2021년 5월 5일자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138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만 감시 강화 계획 추진 치안 강화 및 불법조업 방지 도모

기니만 중서부 지역 국가들이 불법 조업 방지 및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감시 계획 추진에 나섰다.

중서부기니만수산위원회(Fisheries Committee for the West Central Gulf of Guinea, FCWC)는 서아프리카 6개국(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토고)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기구이다. 이들은 5월 12일 지역 감시·통제·감독 센터(Reg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Centre, RMSCS)를 공식 출범해, 해당 지역의 불법 행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RMSCS는 선박 모니터링, 허가된 어선의 지역

단위 기록, 해상 순찰,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 훈련 및 역량 구축과 같은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항만 접근과 이용을 관리하고, EEZ 내 어업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해상 운송을 감시해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Seraphin Dedi FCWC 사무총장은 『RMSCS의 설립은 이 지역 해양의 치안 향상을 도모하는 순찰과 같은 공동 행동에 대한 조직화된 접근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5월 11일자



英-노르웨이 어업협정 결렬 ... 英 수산업계 치명타

英 어업자, 2021년 노르웨이 해역에서 조업 불가

영국과 노르웨이가 어업 협정 합의에 실패해, 올해 영국 원양어선은 노르웨이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양국은 수 주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지난 4월 28일 협정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영국 어선들은 2018년 노르웨이 해역에서 3,200만 파운드(한화 약 495억 원) 상당을 어획했다. 그러나 협정 결렬로 인해 영국은 2021년 노르웨이의 아북극 해역에서 대구와 같은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UK Fisheries사 제인 샌텔 대표는 협정 타결 실패로 인해 수백 명의 어민이 실직할 것이며, 수십 년 간 어업을 했던 노르웨이 해역에서의 어업 권리 조차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영국 정부와 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밝혔다. 또한 영국 어선이 노르웨이에서 어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동안 노르웨이 측

에서 대구를 무관세로 영국 시장에 수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EU 탈퇴로 인해 CFP(유럽공동어업정책)에서 배제되었고, 당사 국가들과 직접 어업 문제를 협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EU 탈퇴 이후 지금까지 페로 제도·그린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 그간 계속 어업을 진행했던 북대서양 지역의 국가들과 단 한 건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Odd Emil Ingebrigtsen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은 양국 해역의 어획 쿼터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2021년 협정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Ingebrigtsen 장관은 브렉시트 이전과 동등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합의는 없는 쪽이 낫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30일자

영국-EU 임시 TAC 연장

합의 이르지 못해, 7월 31일까지 연장

영국과 EU는 공동 자원관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4월 14일까지 설정되었던 기존 임시 TAC를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영국은 공유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해 EU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21년 수산 관련 문제들의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에 설정된 영국 어선에 대한 임시 어획 한도는 영국-EU 무역협력협정(TCA)

에 명시된 새로운 쿼터 배분 및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 고 말했다.

환경식품농무부는 『영국은 올해 EU와의 쿼터 교환 의사가 있으며 EU와 어업에 있어 교환의 이점을 계속 탐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와의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요 협의 사항은 서로의 수역과 쿼터 교환에 대한 접근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 출처: FISHING NEWS, 2021년 4월 22일자



MSC 인증 참치 제품 38% 급성장

2020년 10만톤 생산... 세계 참치 30% 인증

MSC(해양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생산된 MSC 인증 참치 제품의 생산량이 38%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30%가 MSC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지속가능한 참치 제품의 급성장은 MSC 인증 포장 라벨 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소매업자, 식품 서비스 부문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해 MSC 인증 참치 공급에 강한 의지를 보인 글로벌 브랜드로는 Edeka, Netto, Walmart, Bumble Bee, Lidl 등이 있다. 참치 업계는 수년에 걸쳐 MSC가 정한 과학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MSC 인증을 받은 참치 어업 기업은 65개로, 지난해 대비 50개 증가했다. MSC 프로그램 관련 참치 어획량의 비중은 1년만에 26%에서 49%로 증가했다. MSC 인

증을 받은 참치 어획의 비중은 1년 전에는 1%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28.89%이며 인증 평가 진행 중인 것은 20.4%이다.

MSC 자료에 따르면, MSC 인증을 받은 참치 제품은 2019~2020년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7만 톤을 기록했고, 2020~2021년에는 1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83% 증가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52% 증가했다. 캔 및 보존 참치 제품은 2019년~2020년 4만 6,200톤이었으나 2020~2021년에는 6만 8,916톤을 기록했다. MSC 인증 참치가 들어간 즉석식품은 1만 6,740톤에서 2만 2,266톤으로 증가했다. 냉동 참치 판매량은 3,694톤에서 4,149톤으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Marine Stewardship Council, 2021년 5월 2일자

MSC, 지속가능 어업·연구 프로젝트 위한 기금 조성 옵서버 비롯, 전 세계 20여 프로젝트에 최대 6만 파운드

MSC(해양관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해양관리기금으로 전 세계 20여 개의 어업과 연구 프로젝트에 최대 6만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RSPB(영국왕립조류보호기관), WWF(자연보호기금), EDF(환경방위기금) 등 전 세계의 어업 관련 연구기관이다. 그 중 4분의 1은 개발도상국 어업 지원에 사용된다.

2021년도의 기금은 옵서버(observer) 안전성 증진 연구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했다. 옵서버는 책임있는 어업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관리기금의 일

부는 옵서버를 육성하고 파견하는 기업인 솔트 워터와 IT 컨설팅 기업 코데이터가 공동 진행 중인 프로젝트 「원터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연구에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옵서버가 본부와 안전한 연락을 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서비스를 통보하는 등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기금은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혼획 방지를 위한 3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어획 및 어업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4월 26일자



RFVS(책임어선표준), 英 선박에 첫 인증 선박 노동환경에 대한 신뢰 증진

Sea Fish Industry Authority(지속가능한 수산물 산업을 위한 영국 비정부 공공기관, 이하 Seafish)와 미국에 본부를 둔 기구 Global Seafood Assurances(수산 가공공장 인증, 이하 GSA)가 공동 개발한 Responsible Fishing Vessel Standard(책임 어선 표준, 이하 RFVS)의 첫 인증이 이뤄졌다.

GSA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수산물 어업의 전 과정을 높은 수준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해, 세계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이 Seafish와 협력하여 개발한 RFVS는 책임 어업 제도(이하 RFS)의 후신적인 제도로, 선원 복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이 해안부터 어장에 걸쳐 적절한 노동 환경에서 운영되는지 보증해 준다. 또한 선박의 크기 문제도 다루고, 그룹 인증 옵션을 제공한다. 해당 표준은 전 세

계의 모든 공급망에서 사용될 수 있다.

RFVS 인증을 받은 선박인 Lunar Bow호의 선장 AJ Buchan은 새로운 표준이 기존 RFS보다 선원 복지를 더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RFVS가 상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표준을 위한 어업계의 노력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해당 인증을 받은 선박을 소유한 Klondyke사의 대변인 Andrew Duthie 또한 최근 공개된 Seaspiracy와 같은 다큐멘터리로 인해 슈퍼마켓 측에서는 수산물이 환경 보호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달된 것인지 100%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런 점에서 MSC나 RFVS와 같은 신뢰 가능한 인증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hing News 2021년 4월 29일자 기사

민대구 가공업, 나미비아 효자산업으로 급성장 아프리카 두 번째 MSC 인증 취득, 신시장 개척 기대

나미비아 민대구 산업이 나미비아 정부에 수백만 달러를 안겨주는 효자산업으로 급성장했다.

나미비아 민대구 트롤어업과 연승어업은 나미비아 최초,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MSC 인증을 받았다. 피터 팔(Peter Pahl) 나미비아민대구어업협회 회장은 특히 가공 등 부가가치 공정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팔 회장에 따르면 나미비아 민대구 가공 산업은 초창기에 단순 포장 공정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공정 과정이

생겼고, 현재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대로 가공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팔 회장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민대구 상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회장은 MSC 인증 취득을 통해 나미비아 민대구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기사 출처: neweralive, 2021년 4월 30일자



WTO, 수산보조금 논의 지속

7월 장관회의 개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과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인 Santiago Wills 콜롬비아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게 힘든 결정을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7월 장관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그룹 회의에서 『우리는 장관들에게 수산보조금과 한두 가지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춘 7월 화상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녀는 『7월 회의의 목적은 최종이 되었으면 하는 매우 진일보된 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Wills 의장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표단 대표

들로 구성된 소규모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협상 진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생계형·소규모 어업, 세계 보조금 등 제외 가능 분야, IUU 어업 판단에 대한 적법 절차 요구사항, 과잉 어획 및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Wills 의장은 이 회의에서 진정한 타협 시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면 7월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4월 22일자

유럽 수산업계, EU에 백신 접종 우선권 촉구

어업 분야 특화 프로토콜 필요성 제기

유럽수산노련(ETF)과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은 EU 위원회에 회원국들이 어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및 어업 분야에 특화된 코로나 백신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ETF와 Europêche는 어업 종사자들이 필수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점과 이들의 근무지 및 근무형태를 고려해, 백신 접종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달리, 어업 종사자들은

감염 대처가 매우 어렵다. 이들의 작업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선상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정에 맞춰 면역력을 갖추게 하는 것(백신 접종으로 인한)이 매우 어렵다.

* 기사 출처: fiskforum, 2021년 4월 30일자 기사



美세포배양 수산식품 기업, 타이 유니온, 미쓰비시와 협약 체결 세계적 대기업, 세포배양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 확대

세포배양 수산식품 스타트업 BlueNalu는 4월 28일 타이 유니온, 미쓰비시와 아시아 시장에서 세포배양 수산식품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추진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BlueNalu는 타이 유니온, 미쓰비시와 MOU를 체결, 자사의 세포배양 수산식품을 위한 시장 개발 전략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자가 독립적 계약주체로서 체결한 해당 합의 내용에는 아시아 전역에서의 시장조사, 소비자 통찰, 규제 조건과 비즈니스 및 상품 기회 탐색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BlueNalu는 지난 1월 벤처캐피털 투자자와 타이 유니온이 주도하는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마무리했다. 이번 자금조달은 세포배양 수산식품 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기업의 첫 시험적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해당 시설은 마히마히, 참다랑어 등 세포배양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BlueNalu는 이외에도 지난 2년간 Nutreco, 스토포, 풀무원, KBW벤처스 등 여러 거물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28일자

세포 기반 수산물 생산 회사 대표 인터뷰

현재 국가 규제로 싱가포르 제외 판매 불가, 규제 변화 움직임

싱가포르 실험실 배양 인공 수산물(lab-grown seafood) 생산자인 Shiok Meats사의 대표이사이자 공동 설립자인 Sandhya Sriram은 세포 기반 수산물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도달하는데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Sriram은 세포 기반 수산물이 유일하게 승인된 싱가포르에서 내년에 랍스터 배양육의 상업적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미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은 승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며 홍콩, 인도, 중국에서도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1~2년 내에 다른 몇몇 국가에서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고 말했다.

Shiok Meats사가 싱가포르인 8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 이상이 세포 기반 수산물을 섭취해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iram은 대체 단백질에 대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수산물 회사와 대체 단백질 스타트업 간의 합병이 계속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4월 21일자



탄자니아, 어업 발전을 위해 투자자 유치 신규 규정 제정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개방

탄자니아 당국은 탄자니아의 수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참치 및 기타 어업의 어업권 발급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심해어업관리개발법(Deep Sea Fisher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Act)과 연관되어 있다.

탄자니아 EEZ는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회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코모로 수역과 인접해 있어 참치 어업에 중요한 수역이다. 참치는 주로 4~8월 사이에 이 수역을 통과한다.

탄자니아 축수산부 및 청색경제수산부 장관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심해어업청(Deep Sea Fishing

Authority, DSFA)에 어업권 발부와 투자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심해어업청은 201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의 EEZ 심해 어업을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해어업청의 Emmanuel Sweke 청장 대행은 신규 규정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심해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 제정으로 탄자니아 투자자들의 진입이 단순화 되었고 심해어업청은 어업 분야에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4월 15일자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경제정책 로드맵

잔지바르, 청색경제(Blue Economy) 활동을 위한 주요 허브로 육성

후세인 므위니 잔지바르 자치정부 대통령은 수출 지향적 기술 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제 현대화 및 다각화를 통해 생산 능력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 정책을 내놓았다.

수산업 인프라 관련 정책 전략은 △어류, 바이오매스 및 기타 중요한 정보 시스템의 통계 데이터 베이스 개발, △생산, 가공, 부가가치 창출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어업 가치사슬 개발 투자, △태양광PV와 같은 오프 그리드 솔루션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개선이다.

어업 관련 정책 전략은 △대규모 어선에 대한

투자 촉진, 영세 어부들의 역량 강화, 어업자 대상 대출 기한 연장 △심해 어업에 대한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현대적 수산시장 설립이다.

현재 잔지바르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청색경제 정책 하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터키 투자회사 Northland Capital Investment가 잔지바르의 수산물 가공회사인 Salmin Fisheries와 2020년 11월 30억 달러 투자 계약을 맺고 잔지바르 내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 기사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4월 12일자



바다에 오는 이슈

이 생 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 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거리니





최대, 최첨단, 친환경 부경대 실습선 ‘백경호’ 취항 3,990톤급, ‘바다 위 캠퍼스’

수산계 최대 실습선 '백경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는 지난 23일 오후 용호만 매립부두에서 수산계 최대 실습선 '백경호(白鯨號)' 취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부경대 장영수 총장, 교육부 정종철 차관,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부산 남구청 박재범 청장, 부산항만공사 남

기찬 사장, 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백경호 건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취항명령서 전달, 선상관람 및 해상 퍼레이드 등이 진행됐다.

총톤수 3,997톤인 부경대 백경호는 수산계 실습선 중 최대 규모로, 1960년대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처음 개척했던 부경대 실습선 백경호의 이름을 다시 명명한 것이다. '바다 위의 캠퍼스'로 일컬어지는 이 선박은 정부예산 532억 원이 투입돼 대선조선(주)이 지난 2019년 착공해 진수식과 인수식을 거쳤다. 백경호는 전장 97.0m, 선폭 15.4m, 승선인원 160명, 최대속력 16노트, 항속거리 1만 8,636마일을 운항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실습선이다.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과 LAN설비를 탑재해 선



내 네트워크 및 항해·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시스템을 갖췄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습선 중 최고 수준인 TIER3 등급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갖췄고, 선박자동위치제어시스템(DPS)을 장착해 장시간 한 자리에서 실습활동이 가능하다.

장영수 총장은 “백경호가 세계 대양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21세기 해양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종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부경대 백경호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을 품고 새로운 100년을 열다 수과원, 29일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 등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을 기념하여 4월 29일(목)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는 1921년 수산시험장이 출범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수산시험장은 비록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기관이지만, 이를 통해 해양, 자원, 양식, 가공 등 수산업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를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0년간의 성과와 의의를 알리고, 우리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기념식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 윤명길 원양산업협회 회장, 수

산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문성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양 관측, 김 양식, 넙치, 전복 양식기술 등 100년간의 연구 성과가 우리 수산업 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이 앞장서서 수산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은 '100년을 품고, 새로운 100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간 온라인 기념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사)한국수산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가 열렸다.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걱정마세요!

해수부, 국제해사기구표준 해사영어 교재 12권 발간·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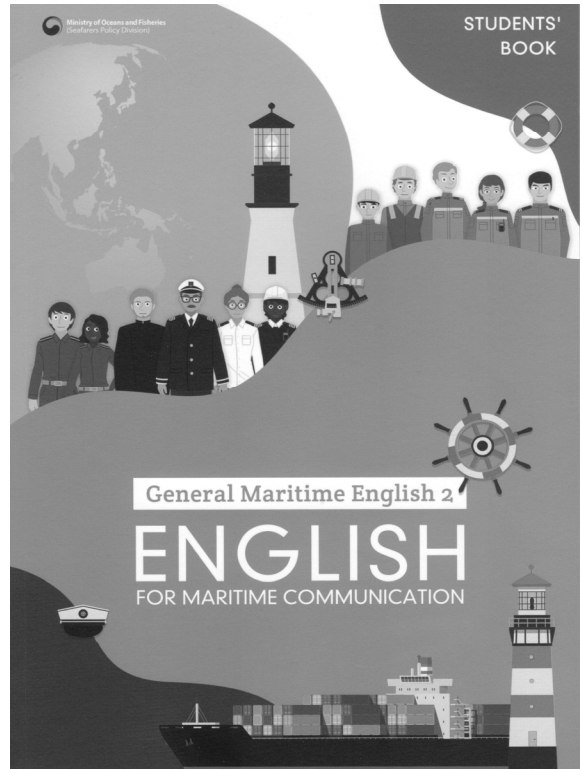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7일(금) ‘국제표준 해사영어 교재’ 12권을 발간하고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수산대학교, 수산고등학교와 같은 해기교육기관과 주요 선사 등 36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선원들이 승선하는 선박의 외국인 선원 비율이 45%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인력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사영어 교재 출간을 추진해 왔다.

교재 출간작업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진과 국내외 해기교육, 영어교육 전문가 감수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년여 간 집필 및 감수작업을 거쳐 이번에 교재 출간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 교재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요구하는 수준의 해사영어 능력을 다방면으로 반영한 국제 표준 해사영어교재이다. 이전에 있던 해사영어 교재는 통신영어나 항해일지 작성용 등 일부 상황에 쓰이는 대화문만 다루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항해, 화물작업, 무선통신, 기관(엔진) 운전 등 선박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에 필요한 영어 대화문을 이해하기 쉬운 삽화와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해사영어, 항해전문영어, 기관전문영어 등 직무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학생수업용, 자가학습용, 교사지도용으로 나누어져 있어 상황과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사영어교재 발간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선원들이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40강좌를 제작하고, 내년에는 80강좌를 추가로 제작하여 총 120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영상 강의



를 들을 수 있는 전용 학습 누리집을 연말에 별도로 제작하여 해당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들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해사영어교재와 앞으로 제작할 동영상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선원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불필요한 오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효율도 높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선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성실성과 더불어 영어 사용능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선사의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양어업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앞장선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27일(화)부터 6월 7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첫째,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에 지역 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일부 업종(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현실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계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양륙량 보고 기한을 72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내 기준에 맞추어 240시간으로 늘린다. 어획물을 최종 양륙하는 단계에서 72시간 내 보고를 위해 해외 운반 선사에 급하게 자료를 제출받아 양륙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고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기한을 조정하게 되었다.

유망한 수산식품 기업, 정부 지원 힘입어 해외로 뚫어나간다

성장 배우처 10개사, 고도화 배우처 5개사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수) 밝혔다.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는데, 먼저 최근 3년간 수산식품 평균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성장 배우처’를 지원한다. 이들 10개사에게는 매년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수산식품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게는 ‘고도화 배우처’를 지원한다. 이들 5개사에게는 매년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 배우처와 고도화 배우처 모두 올해 사업을 추진한 뒤

연말에 사업성과와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내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은 배우처 사업 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배우처 사업 내에는 수출 준비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 지원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시장 테스트, 샘플 통관운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등 총 14개 항목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마련되어 있다. 배우처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업들이 배우처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별 현장 컨설팅 및 역량 진단,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지사와의 연계한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입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박설진 과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대리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589-1614	참치선망·연승
-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공지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2	일반/지역수산기구
		이원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희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3호

발행 : 2021년 5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